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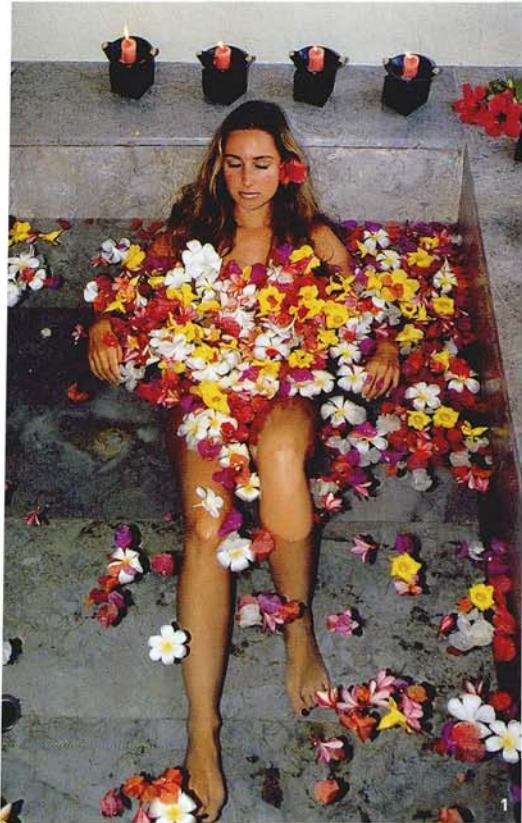
Private Heaven

여유로움을 찾아 떠난 휴양지에서조차 북적거림과 피곤함이 느껴진다면 자연의 평화를 그대로 간직한 섬 룸복으로 떠나보자. 요란한 환영 퍼레이드 대신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 어린 원주민들의 눈길이 당신을 맞이할 것이다. 룸복 섬에 위치한 룸복 오베로이 리조트(Lombok Oberoi Resort)는 그 섬이 가진 자연의 순수함을 그대로 담은 리조트다.

에디터 유소라 자료 제공 제이슨 여행사(515-6897)



Lombok Oberoi Resort



More Private 열대 우림과 황금빛 모래사장, 산호초, 열대 어 등 이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풍경을 자연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섬, 롬복. 이곳은 인도네시아 군도 발리 섬과 이웃해 있는 섬으로 오베로이 호텔&리조트 체인 중 하나인 롬복 오베로이 리조트가 들어서 있다. 섬 북서 해안가인 메다나 비치에 위치한 롬복 오베로이 리조트는 한적하고 평화로운 휴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최적의 장소로 손꼽히는 최고급 리조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1시간을, 롬복의 마타람 공항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 가면 대규모의 열대 정원 같은 롬복 오베로이 리조트를 만날 수 있다. 리조트 앞에 펼쳐지는 길리 섬의 풍경은 마치 아담과 이브가 살던 낙원을 연상케 할 정도로 태고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다. 24에이커의 리조트에는 20채의 고급 빌라와 30채의 테라스 파빌리온이 백사장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데, 모든 빌라는 롬복의 전통 색상과 디자인으로 꾸며져 자연과 인도네시아 특유의 미(美)와 조화를 이룬다. 20채의 빌라는 지붕이 롬복에서 생산되는 천연 재료인 야자수로 덮여 있어 태자루프 빌라라고도 불린다. 로비 중앙에서 메다나 해변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풀장은 수영을 하면서 자연스레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허니문녀들이 많은데, 그것은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50채의 각 빌라는 돌로 된 높은 올타리로 둘러싸여 빌라 밖의 어느 곳에서도 엿볼 수 없으며 개별 수영장을 모두 갖추고 있다. 바다가 내다보이는 테라스 파빌리온에는 130피트가 넘는 깊이의 수영장 외에도 개인 정원과 테라스, 식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야외 공간을 갖추고 있어 어떠한 방해 없이 개인적인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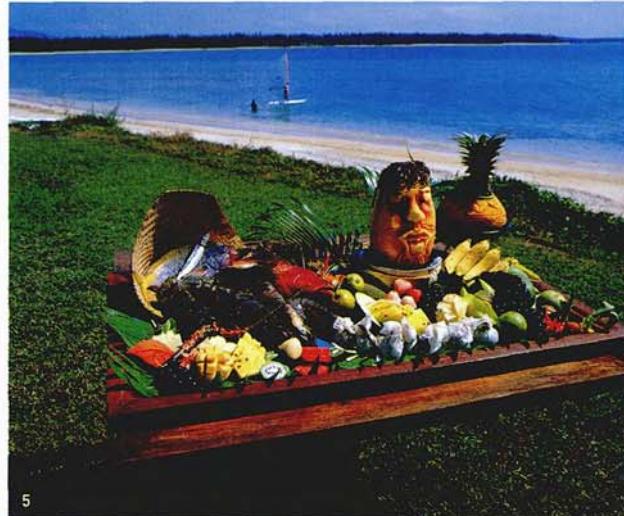
리조트에서 보내는 휴가라면 해변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의 균사한 식사도 빼놓을 수 없을 터. 바다가 바라보이는 선버드 카페에서 아침식사를 즐기고 저녁은 메인 레스토랑인 런던에서 다양한 유럽식 요리와 아시아 특선 요리를 즐긴다면 어떤 화려한 정찬도 부러울 것이 없다. 민속공연을 보면서 식사를 즐기고 싶다면 원형 극장인 앰피시어터에서 제공하는 뷔페 요리를 이용해보자. 더불어 발리의 아궁산 너머로 지는 장엄한 낙조를 볼 수 있는 칵테일 바와 테라스 바도 있으니 꼭 들러볼 것.



3



4



5

1 리조트에는 여행의 피로를 물어주는 디양한 스파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2 리조트는 코로지 스티일의 아자수 지붕이 이색적인 태자루프 빌라 20채와 30채의 테리스 파빌리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인도네시아 전통 스타일의 건축양식과 아자수로 둘러싸인 넓은 잔디밭,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한 폭의 그림을 이룬다. 4 롬복 오베이 리조트는 발리의 어느 리조트보다 활泼 한적하고 고급스런 50채의 독립된 빌리를 갖추고 있다. 5 롬복은 우거진 열대 우림과 황금 모래사장, 산호초, 열대어 등으로 풍요로운 섬이다.

Spa & Activities 롬복 오베이 리조트 앞 길리 섬에서 즐기는 해양 스포츠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재미. 산호초와 스쿠버 다이빙의 명소로 알려진 길리 섬에서 해양 스포츠를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리조트에서는 원드서핑과 스노클링 장비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다이빙센터에는 카약, 요트 세일링, 스쿠버 다이빙 등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비치클럽이 있다. 격정적인 수상 스포츠가 부담스럽다면 나무로 만든 아우트리거 보트를 타고 석양을 감상하는 선셋 크루즈를 즐길 수 있다.

좀 더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면 리조트에 머무는 기간 중 하루를 길리 군도 내의 원주민들과 보내는 것도 좋을 듯. 산호초로 유명한 길리 군은 리조트에서 보트를 이용해 갈 수 있으며, 스노클링 장비 외에 특별히 갖춰야 할 준비물은 없다. 섬 내의 유일한 지역 교통수단인 ‘시도모’라는 당나귀 수레를 타고 관광하다 출출해질 때면 리조트에서 준비해준 특별 도시락을 즐기는 길리 섬 관광은 그야말로 특별한 소풍이 될 것이다. 특히 이곳의 산호초는 스노클링과 테라 팔마(Terra Firma)를 즐기는 이들에게는 어느 곳

보다 매력적이다.

다양한 수상 스포츠나 반나절의 소풍을 끝내고 리조트로 돌아왔다 면 에테르 성분을 함유한 스파 서비스를 받을 차례. 리조트 안에는 다양한 스파 프로그램과 트리트먼트 룸, 뷰티 살롱, 헤어 살롱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뷰티 살롱에서 제공하는 ‘만디 놀루(Mandi Lulur)’ 서비스는 자바 섬에서 전통 혼례 기간 중 매일 신부에게 해주는 화장에서 기원한 것으로 다른 곳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서비스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사해에서 나는 재료를 이용한 ‘타술 머드 트리트먼트’와 다양한 마사지 그리고 온천탕 등을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

Travel Tip

* 여행 시즌 : 롬복은 9월에서 12월, 그리고 3월에서 7월에 여행하기 좋다. 이때는 바람이 불지 않아서 항상 바다가 진전해 수상 스포츠를 즐기기에 적합하며, 진진한 바다 위로 스러지는 석양이 환상적이다.

* 여행 문의 : 제이슨 여행사 (www.jasontravel.co.kr) 515-6897